

## 입는 것이 시원하다

글: 류인혜(수필가)

나무는 줄기 속으로 나이트레를 만들어 간다. 가냘프던 몸에도 나이트레가 생겨 가는지 이름에 따른 경계가 없어진다.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몸이 점점 더워지는 것이다.

언젠가는 잠자리 날개 같은 모시옷을 입고 지내야지 했던 기대가 허물어질 판이다. 어깨 죽지의 지방이 두꺼워지는데 아무리 옷감이 시원하다고 해도 여름 삼복더위에 긴 자락을 치렁거릴 자신이 없어진다. 머릿속에 그려왔던 고운 자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그에 대처할 방법이 필요했다.

여름차림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얇은 스커트 속에 입는 속치마다. 대부분 덩다는 이유로 중간 옷을 생략하여 흰치 비치는 차림으로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여 나일론 소재라도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을 원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전기였는데, 얼마 전 지인을 통하여 인견 옷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인견은 한복의 속옷을 만드는 정도이고 나이드는 사람들이나 향수처럼 그리워하는 옷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견으로 겹옷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다니 귀가 번쩍 뜨였다. 인견(viscose rayon)은 목재펄프에서 추출한 천연섬유이니 친환경제품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이 애용해야 될 소재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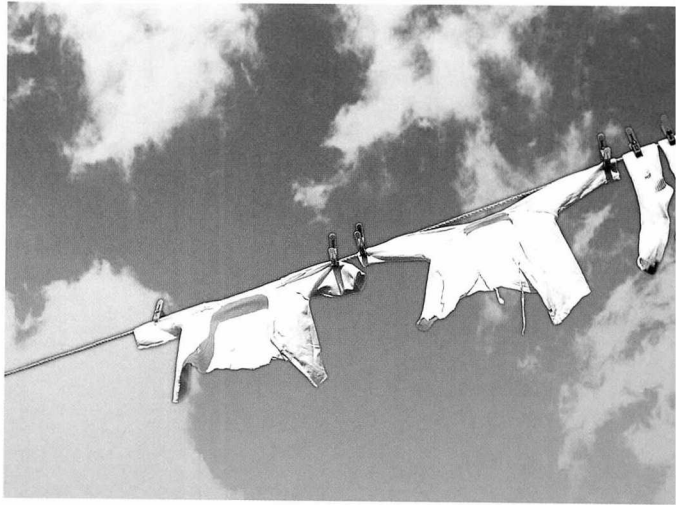
서둘러 풍기로 가서 인견으로 만든 옷들을 구경했다. 흰 색깔로만 인식되어 있던 인견에 곱게 염색을 하고 무늬를 놓아 갖가지 옷과 이부자리와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었다. 옷감의 조직도 툭툭하여 솔기가 잘 상하던 예전에 비하면 훨씬 고급스럽다. 가공하는 기술이 늘어서 값싼 인견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세련되어 보였다.

욕심이 나서 원피스, 블라우스, 반바지, 속옷 등 종류별로 무겁게 사들고 왔다. 주의 사항이 적힌 대로 따뜻한 물에서 여러 번 헹구어 가공할 때의 염료와 풀기를 먼저 빼낸 후 입으니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살갗에 닿는 섬유의 서늘함에 기분이 상쾌해진다. 진작 알았더라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여름날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소용 없는 후회까지 생긴다. 빨래 후에 풀을 먹이고 다림질을 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아쉬운 대로 마르기 전에 손질을 잘 하면 그냥 입을 수 있다.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요량으로 편리하게 두루 입을 수 있는 속바지를 대량으로 주

문했다. 그런데 주문한 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면 좋으련만 겨우 허벅지 쪽에 걸리면서 품은 한없이 넓다.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입겠다는 뜻인데 뻗뻗하게 품만 넓으니 여름용 얇은 겉옷 속에 입기에는 부적당하다. 그 지방 사람들은 몸에 붙지 말라고 그렇게 넓으면서 짧은 길이를 선호한다니, 천상 할머니께서 입던 고장주(고쟁이)다.

한 개씩 지퍼 백에 포장해 두었다가 나이트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



었다. 인건 옷을 입어본 그들이 옷의 시원함을 이야기한다. 벗고 있는 것보다 입는 것이 더 시원하다며 신기해한다. 여름이면 무조건 벗어 재치는 세태에 할 말이 생겼다. 나뭇잎은 여름에 더 무성하듯이 벗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고, 자연을 닮으라 말하고 싶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품이 워낙 커서 입기 망설여지던 속바지를 꺼내 걸쳐보니 살에 닿는 감촉이 차서 상쾌하기까지 하다. 그 위에 가벼워서 착용감이 별로 없는 인건 원피스를 입는다. 무더위는 어디로 갔는지, 정말 말대로 겹겹이 입는 것이 더 시원하다.(柳) 卍